

제보전화 : (051)500-5145 이메일 : opinion@kookje.co.kr



부산테크노파크는 지난 8일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과 연계해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위기가정 여성 청소년을 위해 300만 원을 전달했다.



경남정보대학교(총장 김대식) 지역사회봉사단은 지난 10일 부산 사상구 감전동 당산공원에서 지역 어르신 150여 명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했다.



부산형만공사(BPA, 사장 강준석)는 지난 9일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건설 현장을 찾아 비산먼지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명례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장 최순환)은 지난 9일 공단 회의실에서 입주사 대표들이 참석한 제9기 정기총회를 열었다.



사단법인 생명푸드세어링(이사장 지상협)은 지난 7일 부산 사하구(구청장 이갑준)에 마스코, 바디샤워, 과일 제빙류(250만 원 상당) 등을 기부했다.



부산 영도구 동삼1동 사랑회(회장 이익성)는 지난 9일 영도구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 이용자를 위해 불고기 150인 분을 만들어 대접했다.



부산 연제구(구청장 주석수)는 지난 9일 공동현안 논의를 위한 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회장 수영구청장 강성태) 3월 월례회를 개최했다.

“김해 문화등대 자리매김... 대중공연 기획 심혈”

■ 정승화 남명아트홀 예술감독

개관 2주년 오페라 탱고 등 고심
코로나 기간 공연실황 송출 호평
기업 강연회·북콘서트도 개최

경남 김해시 신도시인 장유3동(울하2지구)에 가면 공연장과 갤러리를 갖춘 남명아트홀이 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 6월 남명 엔스퀘어빌딩에 문을 연 이 시설은 수많은 공연과 작품을 무대에 올리며 지역민의 문화갈증 해소에 이바지했다. 이곳은 아파트 건설사인 남명산업개발 본사 건물로, 이문화 시설은 회사 측이 직영한다. 남명아트홀은 오는 6월이면 개관 2주년을 맞는다. 개관 2주년 기념 공연 준비로 분주한 남명아트홀 정승화(45) 예술감독을 만났다.

성악가(바리톤)인 정 감독은 오페라와 아리아 무대에서 활동하는 현역이다. 정 감독은 “아트홀은 145석으로 대형은 아니지만 그동안 임팩트 있는 공연을 유치했다고 자부한다. 갤러리도 지역 미술인에게 개방해



정승화 남명아트홀 예술감독이 개관 2주년 공연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문화 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의 말속에 남다른 자부심이 느껴졌다. 그는 “개관 2주년 공연은 오페라나 재

즈, 탱고 공연 가운데서 선정할 예정이다”며 “지역민이 공감하는 대중적인 공연, 늘 보는 것이 아닌 새로운 공연을 기획 중”이라고 말했다.

정 감독은 평소에도 시민의 공감대가 높은 공연을 올리는 데 주력했다. 대중화를 통해 문화의 질적 수준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신념에서 비롯됐다. 앞서 코로나 시국에도 남명아트홀은 지역 예술인과 시민에게 ‘문화 등대’로 자리잡고자 애썼다.

그는 “비대면 시대지만 공연 실황을 실시간 유튜브(남명아트홀)로 송출해 더 많은 시민이 청취하도록 해 좋은 반응을 이끌었다. 기업 강연회, 북콘서트 등으로 활용하며 어려운 시절을 지역민과 함께 이겨냈다”고 전했다.

남명아트홀은 타 문화시설과 견줘도 뒤지 않는다. 스피커는 사운드가 명품인 독일 D&B사 제품이며 배경화면도 전면이 LED로, 빔프로젝터를 사용하는 일반 극장과 달리 고해상도를 자랑한다.

본사 건물에 문화시설을 지을 때부터 “다른 극장과 차별화하라”는 이병열 남명산업 개발 회장의 뜻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이 회

장은 평소 메세나 사업에 투자하며 지역 음악인과 화가의 후견인 역할을 해왔다. “기업이 문화다”는 말을 즐겨 해온 이 회장은 아파트를 짓는 건축 활동을 비롯한 기업 활동도 미적으로 아름다워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

정 감독은 “14세기 르네상스가 이탈리아 문화를 꽃피운 것은 메디치 가문의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남명도 그런 역사를 써 내려갈 것이다”며 “갤러리 전시도 70%가량은 지역 작가 작품을 유치한다. 개관 작품을 김해미술협회 작가에게 맡긴 것도 같은 맥락이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빌딩은 건물 자체가 공연 맛을 갖춘 매머드 문화시설이다. 꼭대기에 웨딩, 가든 파티, 와인퍼레이드(와인장터)이 가능한 더라운지가 있고, 식당인 하이라이프(이탈리아레스토랑), 가미학(한식다이닝)은 물론 재즈 공연을 감상하는 블레스1991(락테일바) 등 명소가 있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정 감독은 2007년 이탈리아 프로시노네 국립음악원에서 성악을 공부했고 동대문, 부산가톨릭대에서 음대 외래교수를 지냈다. 글·사진·박동필 기자

천태종 삼광사, 대조사전 건립 낙성식 봉행

대한불교 천태종 삼광사(부산 부산진구 초읍동)는 대조사전을 건립하고 낙성식을 봉행했다. 대조사전은 천태종 중장한 상월원각대조사사를 기리는 공간으로, 천태종의 본산인 충북 단양 구인사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 10일 삼광사는 상월원각대조사 존상 점안식과 대조사전 건립을 기념하는 낙성대법회를 거행했다. 천태종 중장 동용 스님을 증명대법주로 한 이 자리에 종단 스님과 연합회 스님, 전국의 신도가 참여해 축하와 감사의 뜻을 표했다. 전국 각지의 신도들이 몰리면서 안전을 위해 임시로 대조사전 출입 인원을 제한할 만큼 열기는 뜨거웠다.

상월원각대조사는 1945년 천태종 총본산인 단양 구인사를 창건하고, 1966년 천태종 중장을 선포한 중장주이다. 애국불교 생활 불교 대중불교를 3대 지표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참선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중풍을 세웠다.

삼광사대조사전은 2019년 9월 기공식 이후 3년 5개월 만에 완공됐다. 대조사전은 연면적 280㎡ 높이 18m이며, 한국 전통 목조



지난 10일 부산 부산진구 삼광사에서 대조사전 상월원각대조사 존상 점안식이 봉행되고 있다. 이원준 기자 windstorm@kookje.co.kr

양식이다. 이로써 구인사뿐만 아니라 삼광사에서도 상월원각대조사 존상을 볼 수 있게 됐다. 삼광사 주지 영제 스님은 개회사에서 “상월원각대조사님의 법조창생 구제중생의 소원이 선대 불자의 기도정신으로 이

어졌고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와 주경야선(晝耕夜禪) 기도 정진의 실천은 삼광사 대조사전으로 나타나게 되었으니, 세세 생생 중생의 귀의처로 숨쉬게 될 것이다”고 인사했다. 최승희 기자

로봇 제조업 에스피시스템스 부산폴리텍대에 장학금 전달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학장 김용규, 이하 부산폴리텍대학)는 지난 8일 ㈜에스피시스템스(회장 심상균)와 장학금 2000만원 전달식(사진)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 ㈜에스피시스템스는 산업용 로봇 및 이차전지 제조기업으로 부산폴리텍대학의 우수한 졸업생을 매년 채용하기로 하고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취업 연계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금을 기탁



했다. ㈜에스피시스템스에 입사를 희망하는 부산폴리텍대학 재학생 또는 입사 예정자에게 1인당 200만 원 장학금이 지급되며, 기업은 만성적인 인력난으로부터 대학의 우수 인력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다. 대학은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학생들의 생활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졸업과 동시에 취업까지 보장되는 기업과 대학 간 동반 성장하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영지 기자

재부 대구경북시도민회,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 가입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회장 서정의)는 지난 8일 재부 대구경북시도민회(회장 우방우·㈜금양상선 회장)가 부산적십자사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에 가입하고 명예의 전당 등재식(사진)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우방우 회장은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과 기부는 법인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진정한 나눔이다. 지역 사회를 따뜻한 공동체로 만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용기를 낼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면 좋겠다”고 하면서 기업인과 법인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강조했다.

한편 (사)재부 대구경북시도민회는 고향발전 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삶의 터전인 부산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왔다.



특히 우방우 회장님과 김윤기 상임부회장은 지역내 긴급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기부, 이윤희 수석부회장은 부산적십자사 RCHC 17호 가입, 류광지 법인은사는 씬숨이바라기기업에 가입했다. 이러한 후원은 지역의 긴급위기가정 조

가정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가정 등 어려운 이웃의 생계 주거 의료 교육지원에 크게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따뜻한 공동체 사회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 최영지 기자 jadore@kookje.co.kr



“부산체고에 빙상부 신설을” 부산빙상경기연맹 교육감 면담

부산빙상경기연맹은 지난 10일 조운섭(주태양금융 회장) 회장을 비롯한 연맹 부회장, 이사 10여 명이 부산시교육청 하윤수 교육감을 면담(사진)하고 부산 빙상 발전을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 회장은 이 자리에서 “부산체육고등학교에 빙상부를 만들어 초중등 우수선수들의 타지역 유출을 막음으로써 부산 빙상에 활력을 불어 넣고, 대학팀 설립팀이 연이어 창단될 수 있도록 기초를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교육감은 “향후 일반 종목은 일반계 고등학교로 분산하고, 체고는 빙상 같은 특수 종목을 유지했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부산빙상연맹은 올 시즌 부산시교육감배 빙상 대회부터 예산 증액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선정 기자

중견 건설사 대성문 모범납세자 표창 받아

부산 중견 건설사(주)대성문(대표이사 채창호·사진)은 지난 3일 제 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성실 납세의무를 이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시상 표창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부산시는 “(주)대성문은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지방재정 확충과 사회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납세자로 선정됐다”고 표창 이유를 밝혔다. 2019년 ‘제53회 납세자의 날’에 받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에 이어 두 번째 모범납세자 표창이다. 최영지 기자

김기범 교수 21일 출판 기념회

국제신문 ‘오늘의 운세’를 연재 중인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김기범(사진·장례행정복지과 교수)은 오는 21일 과기대 백양관에서 ‘실천 생활 풍수와 풍수인테리어’(도서출판 글로벌 필통) 출판 기념회를 연다. 2004년 ‘풍수지리와 전통문화’를 펴낸 뒤로 이번이 12번째 저서다.